

보도설명자료 (16.6.3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USITC “한미FTA, 역대 무역협정중 美수출증가
효과 2위”(16.6.30.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USITC는 이날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에 최소 48억 달러(약 5조6천억원)에서 최대 53억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42억~1천260억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대상이 된 13개 FTA중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경제의 후생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 FTA는 18억~21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억~344억 달러의 후생증가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와 비교할 때 최대값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최소값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 상기 기사 내용은 금일 발표된 ITC 보고서의 본문이 아닌, 부록*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번 보고서를 위해 준비된 자료가 아님

* Appendix H: Findings from USITC Potential Economy-wide Effects Studies, pp.340-343

○ 동 부록의 Table H.1: Commission projections of trade agreement impacts(pp.340-341)는 기체결된 13개 FTA가 미국 경제의 후생,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ITC의 추정치를 포함.

○ 하지만, NAFTA(1994년 체결)는 ITC의 1992년 추정치가, 한미FTA(2012년 체결)는 2007년 추정치가 담겨져 있는 등 13개 FTA별 각기 다른 시점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각각의 수치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동 기사의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는 ITC가 금일 발간한 본문에 포함된 내용임(pp. 138-139)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기준 과장 (010-8638-6080)
이수진 사무관 (044-203-5652)